

수산인력 수백명 키워낸 실습선 없애다니…완도지역 술렁

11년 운영해 온 수산고 ‘청해진호’ 정부 통폐합 방침에 폐선 위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차질…“필수 교육 자원 없애” 주민들 반발

전국 최초 수산 해양 관련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등학교(이하 완도수산고)의 실습선 ‘청해진호’가 폐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폐선 조치는 수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해진호는 지역 수산업을 선도할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실습선을 보유한 완도수산고는 지난 11년 동안 360명 이상의 어선 해기사와 승선 근무를 마친 졸업생을 배출, 수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청해진호의 폐선 조치는 정부가 해안선을 끼고 있는 5개 시군 수산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습선을 폐선하고, 권역별로 운용할 실습선을 새로 만들어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기존 학교별 실습선은 폐선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올해 새로 만들어진 배와 국해양수산연수원 공동실습선(한미르호)을 이용해 전국 수산계고교의 승선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가 보유한 유일한 실습선이 폐선 위기에 놓였고,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어선 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완도수산고는 앞서 지난날 14일부터 청해진호를 이용해 제주, 포항, 여수, 통영, 거문도, 흑산도 등 국내 연안승선실습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원양승선실습을 포함해 총 5항차 이상의 해상 실습과 육상 정박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완도수산고 관계자는 청해진호가 폐선되면 3개월여간 진행되는 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으며, 관련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신입생 유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완도수산고 교장은 “청해진호는 단순한



완도수산고 실습선 ‘청해진호’.

실습선이 아니다. 전남 수산계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플랫폼으로, 어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폐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역시 청해진호의 폐선 위기 소식에 단순한 교육적 문제를 넘어, 수산업의 미래와 해양 경제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폐선에 반대하고 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산 분야에 관한 관심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수산계 고등학교가 제대로 운

영되기 위해서 실습선 폐선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은 청해진호와 같은 실습선은 수산업 인재 양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산고 졸업한 한 주민은 “청해진호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마이스터고 어선 해기사 육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수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청해진호는 20여 년이 넘는 노후화된 선박으로 안전상의 문제와 전국 수산계고교의 권역별 승선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따라 폐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병철 전남도교육청 직업교육팀 장학사는 “지금보다 크고 좋은 새로운 실습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더욱더 안전한 상황에서 승선실습이 이루어지고, 어선 해기사 취득 등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출판취재본부장 ejhung@

“땅끝 해남이 가까워진다” …도로·철도 등 SOC사업 순항

해남지역 첫 철도노선 9월 개통

해남~광주 고속도로 공사도 순조

해남군의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순항하고 있다. 보성-임성간 철도 개통으로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이 들어서고, 계곡면에는 땅끝해남역이 문을 연다.

해남군에 따르면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보성-임성간 철도는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오는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30년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도 열차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해남군은 철도망 개통에 발맞춰 KTX 노선 유치를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경전선과 호남고속철을 연결하고 서울-해남-제주를 잇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노선이 실현되면 목표역을 거치지 않고도 무안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직통노선 확보가 가능해진다.

도로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광주-해남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총 51km 구간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까지 연결되며, 해남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40분대로 단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해남 북평까지 38km로



준공을 앞둔 해남군 계곡면 철도역사.

2028년 착공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해남 옥천면과 북평면에 나들목을 설치, 물류 유통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에는 해저터널 개통이라는 관광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상징적인 사업도 앞두고 있다.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이 터널은 2021년 착공 이후 6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최초의 해저터널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에 맞추어 지방도 공사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

(해남 평남 교차로-삼산 신기 교차로)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또 마산-산이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마산 상등-산이 대진)도 1단계 구간(마산 상등-산이 노송) 착공 및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정도로,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해남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12사도 순례길’을 공유자전거로 달리는 관광객들.

신안군 ‘12사도 순례자의 섬’ 공유자전거 운영

기점·소악도 이달부터 서비스

신안군은 ‘12사도 순례자의 섬’으로 알려진 기점·소악도에서 4월부터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장거리 도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입됐다.

공유자전거 이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다.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찾기 쉬운 순례자의 섬 내 주요 4개 지점에 준비돼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대여는 앱 또는 등록된 카드로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유자전거 정식 운영을 통해 순례자의 섬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청소년 1000원 안심귀가택시 호응

올들어 4월까지 560여명 이용

“택시비 1000원으로 집 앞까지 올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해남군이 택시비 1000원으로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남 지역 최초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집이나 학원에서 밤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이 택시비 1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어 ‘천원택시’라고 불린다.

해남읍을 비롯한 10개 면은 월 최대 30만 원, 해남읍에서 면소재지까지 25km를 초과하는 송지, 북평, 문내, 화원 등 4개 면은 최대 50만원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역 1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야간학습이나 학원 수강으로 일몰 후 귀가하는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9년 40여명에서 시작한 사업은 매년 늘어나 올해는 4월 현재 560여명이 이용하며 학생들의 야간 안전귀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해남군 안전교통과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천원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야간학습 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지난 22일 영산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공〉

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 홍수 피해 예방 협약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지난 22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함께 영산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하구둑의 탄력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중호우 및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산강 수위를 관리수위보다 낮게 운영하고, 홍수기에는 배수갑문을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영산강 수위를 낮춤으로써 유역

내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침수 징후 공유,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하천수위·기상정보의 종합 분석 및 홍수 예·경보 제공 등으로 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박형수 단장은 “유사시 각 기관이 보유한 복구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영산강 유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민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어촌·어항재생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무안군이 2025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어항 재생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200만 원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평가는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 전국 73개 광역,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1년간 사업성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무안군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6개소에, 348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어민다합실 신축, 물양장·방파제 등 기반 시설 정비 등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편



리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다”며 “어촌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라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